

■ 2026년 문학 비평담론 활성화 사업(심층비평)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문학 비평담론 활성화 사업(심층비평)
- 회의일시 : 2026년 4월 20일(월) 14:00~16: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류수연, 서희원, 송수연, 유인혁, 이승원

2025년 처음 시작된 ‘문학 비평담론 활성화 사업’은 문학의 장르 중 하나인 ‘비평’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라는 말은 분명히 ‘비평’이 그리고 비평에서 다루고 있는 ‘담론’이 예전에 비해 혹은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했고, 이를 위해 특별한 사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동감하고 있는 것처럼 ‘비평’은 독자들에게는 쉽게 읽기 힘든 문학의 장르로, 출판시장에서는 상업적 선택을 받기 어려운 전문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이 비평의 무가치함을 말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비평은 분명 독자와 작품을 연결하는 감각적이고 문학적인 언어 행위이며, 작품에 영향을 주는 시장의 논리나 외부의 직접적인 욕망이 제일 먼저 부딪치는 문학의 살갓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문학 비평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문학에 심층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각과 접근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문학 비평담론 활성화 사업’의 취지와 실행은 충분히 중요하고 의미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의기준은 공고한 것처럼, “문학 평론의 전문성”, “집필계획서의 충실성”, “문학 평론의 확산성”이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자들이 정성스럽게 작성한 지원서를 세밀하게 읽으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심의위원들이 심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 사업이 “문학 비평”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문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 논문보다는 일반 문학 독자에 초점을 맞춘 집필 계획서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구 논문이 축적된 근현대 작가보다는 현재의 독자와 함께 문학적으로 호흡하고 있는, 아카데미의 객관적 언어보다는 비평의 문학적 언어로 함께 풍성해질 수 있는 동시대 작가와 작품을 다룬 작업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학 비평담론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충실히 수립한 사례에 더욱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접수된 지원서들은 개별적인 비평가들이 가진 문제의식과 개성적인 문학적 시선을 담고 있어서, 완성된 책으로 출간된다면 공들여 읽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심의위원들이 사전 심사에 들인 시간과 노력만큼 함께한 심의위원회에서의 최종 논의 과정도 진지한 숙의의 시간이 필요했고, 서로의 의견을 심도 있게 주고받으면서 어렵게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계획서는, 특정한 장르나 개별 작가와 작품을 공유하진 않지만, 동시대 문학의 주안점을 민감한 시선으로 포착하고, 세밀하게 탐색하며,

이를 귀담아 듣고 싶은 비평적 언어로 생산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흥미로운 모든 계획서를 지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모든 심의위원들이 심의 과정을 통해 공감한 아쉬움입니다. 하지만 이 아쉬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독자와 바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의 한국 비평이 써내려 갈 의미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며, 독자의 한 사람으로 다른 지면에서 분명 만날 수 있는 문학의 새로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6년 문학 비평담론 활성화 사업(심층비평) 심의위원 일동